

# 농가주부의 의사결정 참여, 역할부담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경혜 · 장미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가정학과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cision Making Power, Role Burden and  
Life Satisfaction of Rural Housewives

Han, Gyoung Hae and Chang, Mi Na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I.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변화 및 농촌 인구의 도시로의 유출에 따른 농촌인구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농촌의 성별 역할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농촌가족의 전통적 요소들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속에서 재구성되어,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들어 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 농촌가족은 가부장적, 전통지향적 요소와 핵가족 지향적인 요소가 혼재하는 과도기적 형태라고 할 수 있어서 갈등 가능성과 모순이 내재한다고 하겠다. 즉 농촌가족의 변화에 있어 소위 time-lag로 일컬어지는 영역간 변화속도의 불일치와 이에 따르는 행동과 규범간의 괴리 등이 나타나게 되어 갈등 가능성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농촌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서, 하나의 체계로서 환경의 영향을 받고, 그에 반응하게 되는 우리 농촌가족이 가족원간의 갈등증가 등의 부정적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변화의 와중에서 재편성되고 있는 농촌가족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나 긴장요인에 관한 논의는 증가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탐색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가족의 규범, 기능 및 관계에서 어느 영역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혹은 변화에 저항적인가, 관련 변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변화/

불변화가 가족원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표출되며, 생에 대한 사기, 느낌 등을 어떻게 결정짓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농촌가족이 안고 있는 가족관계상의 많은 갈등요인과 문제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을 실제적으로 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가족 관계에서의 가부장적인 틀은 완전히 변하지 않은 채 여성의 역할부담만 커진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경기규모가 영세하고 가족농 중심인 우리나라 농업의 특성상 여성들이 농업 생산자로서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농촌여성의 역할증대는 많은 연구들에서 이미 보고된 바 있다. 실제 농촌 여성에 관한 연구는 농촌가족의 기타 가족구성원, 예를 들면 남성, 노인, 아동 내지는 청소년 등에 비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관심의 흐름은 한경혜(1992)가 지적하였듯이 '생산자'로서의 여성에 집중되어 농가 경제적 측면에서 주로 접근되었고, 이들의 삶의 질, 일상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했다. 즉, 정작 간과되고 있는 것은 첫째, 농가주부들의 농업생산 역할증대가 가족내의 관계변화 및 지위향상으로 이어졌느냐 하는 점과 둘째, 농가주부의 이러한 역할/지위내용이 이들의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측면이다.

거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농촌여성의 생산영

역에 대한 참여와 역할의 증대는 이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에(김주숙, 1984)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는 바이다. 남자들이 독점해 온 경제생산 영역에 여성이 대규모로 진출하면 남/녀는 새로운 자원을 소유하게 되므로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부부간의 권력분배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향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보면 우리 농촌여성의 경우 노동참여로 인한 역할증대에 상응하는 가족내의 지위향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가장장적, 전통적 가치관이 잔존하여 농촌여성들이 수행하는 농업노동이 '직업적 일'로 범주화되기 보다는 농가 보조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농촌여성은 생산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생산과 생산과정 등을 통제하는 의사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정권이 따르지 않는, 그리고 남편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이 수반되지 않은 여성의 농업참여는 여성의 지위향상으로 해석되어 질 수 없으며 오히려 여성의 부담 증가만을 의미한다. 김홍주(1992)는 남성과 거의 동일한 시간과 강도의 농업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전업주부의 지위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여 농촌여성만이 가지는 고통이라고 주장하면서, 농촌여성들은 여성으로서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기존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역할과다로 인한 생활의 질 저하 측면외에도, 가족관계 측면에서 보면 가족내 지위와 역할의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 가능성과 그에 따른 삶의 질 저하를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을 실증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농촌여성들이 수행하는 일을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이들을 '전업주부'로 규정하기 때문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취업주부의 역할과다와 스트레스 등의 삶의 질 문제에 관한 연구도 도시의 취업주부에 국한되어 있다.

이상의 지적들을 통합해 볼 때, 농가주부의 역할 부담과 의사결정 참여유형, 그리고 이들의 불균형 정도와 주부의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작업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클 것이다. 특히 앞으로 농업의 상업화, 겸업화, 기계화로 농촌여성의 역할이

점차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농촌 가족내 주부의 역할부담 정도와 의사결정에서의 참여정도 및 가족갈등정도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들이 농가주부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농가주부의 삶의 질은 '전반적인 생활의 질이나 복지의 주관적인 평가'로써 정의되는 생활만족도 개념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의사결정에서 주부의 참여정도로 파악한 주부의 역할지위와 가족원간의 역할분담 정도에 따른 주부의 역할부담의 불일치가 가족원내 긴장관계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관점에서 가족갈등과의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나아가서 역할지위와 역할부담 그리고 가족갈등이 주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들간의 연계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이들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아울러 살펴보았다.

## II. 선행연구 고찰

조옥라(1990)는 농촌가족에서 여성이 얼마나 오래 과다한 역할부담을 안고 지탱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농촌가족의 진정한 위기는 바로 여성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고 나올 때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홍주(1992)도 여성의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여 가족농적 소농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 농민가족의 문제, 여성문제를 발생시킨 주요한 요인이며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역할과중으로 농촌여성들의 삶의 질은 극도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주부의 생활의 질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여서, 한경혜(1980), 최은숙(1981, 1990), 최은숙등(1992)의 한국농촌의 생활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거나, 농촌주부가 인지한 삶의 질에 관하여 경북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조희금(1986)의 연구가 있는 정도이다. 조희금(1986년)의 연구에서는 역할부담과 의사결정에 대한 주부의 참여정도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일에 종사하는 시간이 농가주부가 인지하는 삶의 질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번기에 하루 9시간 이상 농사일을 한다고 답한 주부들이 그보다 작업시간이 적은 주부들에 비하여 자신의 삶의 질을 낮게 인지하였다. 또한 의사결정 형태도 주부의 삶의 질 인지와 관련이 있어서 주부가 주로 결정하거나 부부공동으로 결정하는 '주부 참여형'의 의사결정 형태를 갖는 주부집단이 주로 남편이나 시부모 또는 자녀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부 불참여형'의 의사결정 형태를 갖는 주부들보다 삶의 질을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경상북도의 1개군 지역을 국한하여 조사한 결과이므로 농촌지역 전체에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하겠다. 농촌가족의 부부간 권력 및 역할관계를 연구한 오인숙(1989)의 연구에서는 부부간 결정권이 남편이나 부인 어느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경우보다 부부공동, 혹은 자율형의 근대적 유형인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농촌가족의 의사결정 유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고헌경 등(1963)에 의해 수행된 농촌가족에 관한 연구에서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실증조사가 이루어진 분야이다(최재석, 1983; 이한기, 1977; 박민선, 1984). 최근의 연구들은(박혜인, 1991; 김홍주, 1992) 농촌가족의 의사결정 유형이 과거의 연구결과들과 비교하면 남편의 결정권한이 어느 정도는 부인에게 이양되거나 또는 공동결정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성별에 따른 역할구분이 아직까지 강하게 존속되고 있어서, 농작물의 결정, 영농자금의 이용, 농업 생산물의 판매 등의 농업생산에 관한 부분은 남성의 권한이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보고하였고(김홍주, 1992), 박혜인(1991년)의 연구에서도 농사분담과 중요재산 매매가 남편에게 결정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에 관한 의사결정도 생필품 구입, 자녀문제 등에 여성의 결정권이 어느 정도 강화되고 있는 듯하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비교적 목돈이 드는 소비품목의 결정이나 자녀의 진로, 배우자 선택등 주요사항은 남자가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부인에게는 동의를 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홍주, 1992). 한마디로 남편은 역할은 적고 권한은 많은 반면, 부인은 역할이 많고 권한이 적은 형태의 남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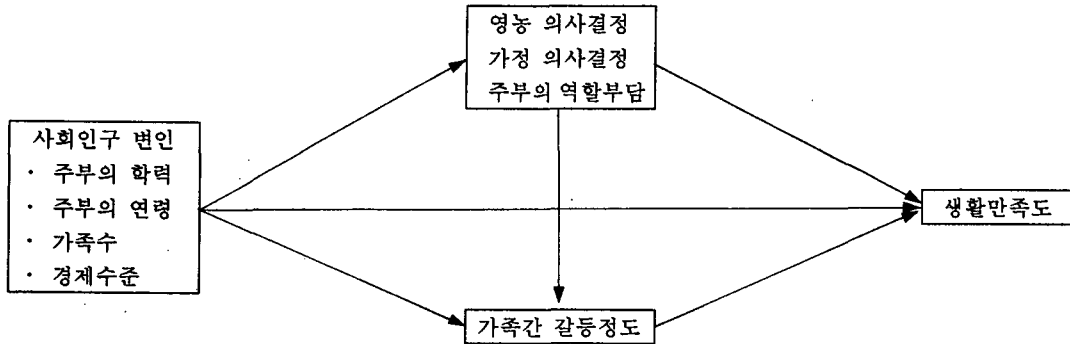
여성의 불균형한 관계, 그리고 역할과 지위의 불균형한 관계구조가 유지, 존속되고 있다고 하겠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농촌가족내의 이러한 불균형 관계는 가족원간의 긴장내지는 갈등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농촌가족에서 관찰되는 가족내 여성지위의 불균형과 가족내 갈등양상과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또한 이들 영역과 여성의 삶의 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비교적 꾸준히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 온 의사결정 분야에서도 대부분 유형의 실태적 파악에 머물러 있고, 이를 가족관계나 주부들의 삶의 질 측면과의 연계측면에서 탐색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한편 제주도 농·어촌지역의 부부간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김혜숙(1982)은 부부간 갈등이 심할수록 부인의 결정권이 낮아지고, 갈등이 없을수록 부인의 결정권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면서, 갈등의 정도가 부부간 결정영역을 구분시키기 때문에 갈등이 높을수록 각자의 영역을 단독으로 결정하는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의사결정과 갈등과의 인과적 관계를 본 연구에서 가정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인데, 김혜숙의 연구는 인과모형을 검증한 것이 아니고 집단간 차이를 본 것이므로 그 인과성 해석에 문제가 있으나, 일단 의사결정과 갈등과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도시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을 탐색한 문숙재 등(1992년)의 연구에서 부부간 갈등의 정도가 높을수록 가정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연구모형 및 변인

본 연구는 농가주부의 의사결정 참여정도와 주부의 역할부담 그리고 가족갈등이 주부의 생활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과모형을 통해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모형은 <그림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유형이 전통적이고, 주부의 역할부담 정도가 클수록 가족원간의 긴장관계가 커져서, 가족갈등이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의사결정 유형과 역할부담 정도는 이러한 가족갈



(그림 1) 연구모형

등에의 영향력으로 주부의 생활만족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의사결정 유형이 근대적일수록 주부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주부의 역할부담이 적을수록 주부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직접효과도 가정되었다. 의사결정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사일과 가족생활의 두 영역에서의 주부의 의사결정 참여정도를 조사하였다. 의사결정 유형에서 전통적 역할분화는 농사일에는 남편주도형, 그리고 가족생활에는 부인주도형인 것으로 지정한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이 두 영역에서 성별분화 정도가 적어질수록 근대적 의사결정 형태를 보이고 여성의 역할지위에 향상이 온 것으로 조작화하였다. 주부의 역할부담 정도는 가족원내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질수록 부담이 낮은 것으로 조작화 하였다. 가족수, 경제수준, 주부의 학력 및 연령과 같은 기본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외생변수로서 의사결정 유형, 역할부담정도, 가족갈등 및 생활만족도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농가주부의 농사일 및 가족생활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정도와 역할부담 정도는 주부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족갈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농가주부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주부의 연령, 학력, 가족수, 경제수준)는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사결정 참여정도, 역할부담 정도, 가족갈등 정도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을 살펴보면, 주부의 생활만족도는 주부의 전반적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5점 Likert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가족갈등은 가족원간 갈등의 정도를 ‘전혀없다’에서 ‘자주있다’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주부의 역할부담정도는 가족내 역할을 ‘가족원간에 분담이 잘 수행되고 있다’에서 ‘전부 주부가 수행한다’까지 4점 Likert 문항으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원간에 분담이 잘 되지 않고 주부의 역할부담이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의사결정유형은 영농영역과 가족생활 영역으로 나누어 남편주도형, 부인주도형, 자율형, 공동의논 결정형의 4가지 유형중 고르도록 하였다. 공동의논 결정형으로 올수록 성별분화가 적고 여성의 참여가 커지는 근대적 유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작화하고 1~4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 IV. 연구방법

##### 1)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전국 농촌지역을 크게 평야지대, 중간지대, 산간지대, 도시근교 지대로 나누고, 다단계 층화확률 추출법을 적용하여 9개도 24개 시군에서 48개 마을을 조사지역<sup>1)</sup>으로 선정한 다음, 이 마을에 거주하는 농가주부를 무작위로 표집하여 미리 작

농가주부의 의사결정 참여, 역할부담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성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 조사자는 조사대상 시군 농촌생활지도사 중에서 사회조사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본 조사의 취지와 조사방법을 충분히 이해시킨 후 활용하였다. 조사기간은 1992년 3월 16일 부터 4월 4일까지 실시하였고, 총 응답자수는 756명이었다. 수집된 조사표는 SPSS PC를 이용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일원분산분석을 하였고,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본 연구의 인과모형에 대한 가설검증을 위하여 중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농가주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표1>에 정리되어 있다. 조사대상 주부의 연령을 보면 50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40대, 30대의 순으로, 50세 이상의 응답자가 약 42% 이상을 차지하여 농촌인구의 노령화가 반영되었음을 볼 수 있다. 학력은 국졸이 4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중졸의 순으로 중졸이하가 86.8%로 나타났다. 가족수는 평균 4.9명이며 조사가구에서 경작하고 있는 논, 밭, 과수원, 그리고 기타 상전등을 모두 포함한 경지규모는 2,500~3,999평이 23.8%로 가장 많았고, 조사가구의 호당 경지규모는 평균 3027.05평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N=756)

구	분	N	%
가족수		평균 4.91명	
1	2명	49	6.7
2	3명	60	8.2
3	4명	153	20.9
4	5명	192	26.3
5	6명	223	30.5
6	7명 이상	54	7.4
주부의 연령		평균 46.67세	
1	29세 이하	30	4.0
2	30~39세	195	25.9
3	40~49세	208	27.7
4	50~59세	226	30.1
5	60세 이상	93	12.4
주부의 학력			
1	무 학	95	13.0
2	국졸, 중퇴	361	49.2
3	중졸, 중퇴	180	24.6
4	고졸, 중퇴	94	12.8
5	대졸, 중퇴	3	4
경지면적		평균 3027.05평	
1	없 음	43	5.7
2	1~1,099평	70	9.3
3	1,100~1,699평	102	13.5
4	1,700~2,499평	162	21.4
5	2,500~3,999평	180	23.8
6	4,000~5,999평	129	17.1
7	6,000평 이상	70	9.3

\* 무응답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변수별 사례수는 얼마간 차이가 있음.

V. 분석결과 및 고찰

1) 의사결정 유형, 역할부담과 가족갈등 상태 먼저 조사대상 농가주부들의 가족내 의사결정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표 2). 농사일에 관한 의사결정은 44%의 주부가 남편이 주도적으로 행한다고 응답하였고, 부인이 주도적인 가정은 4.5%에 불과하여, 조사대상 농가에서는 남편의 결정권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율형과 일치

주1) 조사대상 지역 : 경기도(양평군, 안양시, 안성군) 강원도(명주군, 영월군, 원주시) 충청북도(영동군, 충주시) 충청남도(아산군, 천안시, 부여군) 전라북도(순창군, 이리시) 전라남도(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경상북도(성주군, 칠곡군, 청도군) 경상남도(합안군, 하동군, 울산군) 제주도(남제주군, 서귀포시)

표 2. 조사대상 가족의 의사결정 유형, 역할부담 및 갈등상태

		변 수	N	%
의사결정 유형	남편 주도형		326	44.1
	부인 주도형		33	4.5
	영농일 자율형		178	24.1
	일치형		203	27.4
가족생활	남편 주도		60	8.1
	부인 주도		143	19.4
	자율형		250	33.9
	일치형		284	38.5
역할부담	모두 어느정도 잘 수행		258	34.4
	어른과 큰아이들만 수행		31	4.1
	분담은 되었으나, 미실행		202	26.9
	전부 주부가 실행		260	34.6
가족간의 갈등정도	전혀 없음		127	16.9
	간혹 있음		488	65.1
	간혹 심함		107	14.3
	자주 심함		28	3.7

형도 각 25% 내외로 나타나서, 최재석(1975)의 연구에서 남편주도형이 약 68%였고, 일치/자율형이 약 17%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주부참여형의 근대적 패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전반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에 경북지역 가족을 대상으로 한 박혜인(1991)의 연구에서 남편주도형이 약 44%, 부인주도형이 약 22%, 일치/자율형이 약 33%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전국 농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일치/자율형의 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생활에 관한 의사결정은 영농영역에 비하여 부인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남편이 주도한다는 응답자는 8% 내외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부인주도형, 자율형, 일치형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가족에서는 의사결정 영역에 따라 남편주도, 부인주도로 역할분화가 확인하던 전통적 의사결정 구조가(최재석, 1975; 이은숙, 1977) 지배적이었던 점에 비교해 볼 때, 여성의 주 영역이던 가족생

활의 결정에 있어 이렇게 자율형과 일치형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의사결정 유형이 근대적인 방향으로 변화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가족영역에 비하여 영농 의사결정에서 남편주도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전통적 역할분화가 존속하고 있으며, 여성이 결정과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크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고 하겠다. 일견 상반되는 듯한 이러한 분석결과, 즉 영농영역과 가족영역의 의사결정 유형의 차이와 과거 연구들과 본 연구결과와의 유형의 차이는 모두 복합적으로 농촌가족의 의사결정 형태가 과도기적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주부의 역할부담 정도를 알기 위하여 조사대상 가족의 역할분담 정도를 살펴보았다. 주부가 주 역할 담당자인 경우가 1/3 이상을 차지하고, 분담은 되어 있지만 실행되고 있지 않아서 실제로는 주부가 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26.9%로서 조사대상 가족의 60% 이상이 주부에게 역할이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족원간에 어느 정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서 비교적 잘 수행되고 있는 가족도 34.4%에 달하였다. 이상의 역할부담 정도의 측정에는 주부의 응답에 의존하였는데, 그 객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으나 실제 주부의 생활만족도에는 오히려 주부의 주관적 평가가 더 의미 있는 변인으로써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가족원간의 갈등정도는 응답가족의 18%에서 가족원들이 불편을 느낄 정도로 심한 갈등이 '간혹-자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갈등이 없다는 가족도 비슷하게 나타났다(약 17%).

#### 2) 농가주부의 생활만족도

5점 척도로 측정된 농가주부의 생활만족도 점수의 평균은 3.174, 표준편차는 0.665로 나타났다.

756명 전체 응답자 중 약 10%가 '약간-매우 불행하다'고 응답하였고 약 25%가 '약간-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65%가 보통정도라고 응답하여서 조사대상 주부의 생활만족도 분포는 오른쪽으로 약간 상향 편포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활만족도가 농가주부의 사회인구학적

표 3. 사회인구적 특징에 따른 생활만족도

사회인구학적 특성	평균	F값	
주부의 연령	29세 이하	3.60	
	30~39세	3.27	
	40~49세	3.16	5.7134***
	50~59세	3.08	
	60세 이상	3.11	
주부의 학력	무 학	2.94	
	국졸, 중퇴	3.13	
	중졸, 중퇴	3.27	9.5404***
	고졸, 중퇴	3.39	
	대졸, 중퇴	4.33	
가족수	2명	3.24	
	3명	3.03	
	4명	3.18	
	5명	3.14	.1564
	6명	3.21	
	7명 이상	3.33	
	경제적 수준	매우 낮음	2.81
약간 낮음		3.13	
약간 높음		3.41	22.4491***
매우 높음		3.20	

\* P<.05, \*\* P<.01, \*\*\* P<.001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주부의 연령, 학력 및 가족의 경제수준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있어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01$ ), 가족수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연령층에서 보다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주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부가 인지하는 생활만족도가 낮았다는 조희금(1986), 이기영(198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는 조희금(1986)의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경제수준별 생활만족도는 curvilinear한 패턴을 나타내서 경제수준이 아주 낮은 집단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다가 경제수준이 아주 높은 집단에서 생활만족도가 오히려 낮은 형태를 보인다. 이는 자신의 전반적 생활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경제적 수준과의 단순한 정비례 관계로 가정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삶의 질의 복합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조사대상 농가주부의 생활만족도가 영농, 가족생활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과 역할부담, 가족원의 갈등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표 4). 의사결정 유형이 자율형이나 일치형인 근대적, 민주적 패턴일수록 주부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리라는 기대와 달리,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사결정이 주부참여형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조희금(1986)의 연구나 일치·자율형으로 갈수록 생활에 만족함을 나타낸 오인숙(1989)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나, 부부의 의사결정 유형이 생활의 질적인 측면과 관련이 없음을 제시한 이기영(1984)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라 하겠다.

주부의 역할부담의 정도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간 차이를( $p < .001$ )보 이는데, 가족원간에 역할부담이 잘 이루어지는 집단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고, 주부에게 역할부담이 집중된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원간의 갈등정도도 생활만족도에 있어  $p < .01$  수준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족원간의 심한 갈등이 '간혹 혹은 자주' 나타난다고 응답한 집단은 갈등이 전혀 없거나 간혹 있는 정도인 집단에 비하여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부부를 대상으로 한 김재경등(1992)의 연구에서 갈등정도가 높을수록 가정생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같은 방향임을 알 수 있다.

표 4. 가족관계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가족관계 변인	평균	F값	
의사결정 유형	남편 주도형	3.13	
	부인 주도형	3.12	1.1229
	영농일 자율형	3.22	
	일치형	3.21	
가족생활	남편 주도형	3.04	
	부인 주도형	3.12	2.1552
	자율형	3.15	
	일치형	3.25	
역할부담	모두 어느정도 잘 수행	3.31	
	어른과 큰아이들만 수행	3.29	7.9996***
	분담은 되었으나, 미실행	3.15	
	전부 주부가 실행	3.04	
가족간의 갈등정도	전혀 없음	3.32	
	간혹 있음	3.17	5.2174**
	간혹 심함	3.00	
	자주 심함	3.00	

\* P<.05, \*\* P<.01, \*\*\* P<.001

3) 농가주부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인과모형의 검증

농가주부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인과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분석에 포함된 각 독립변수간의 상관

관계를 고찰해 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영농 의사결정과 가족생활 의사결정 유형간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r=.4776$ ), 영농 의사결정이 근대적 유형을 보일수록 가족생활 의사결정 유형도 더욱 근대적임을 알 수 있다.

가족생활 의사결정과 영농 의사결정 유형은 가족갈등 정도 및 주부의 역할부담 정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서 의사결정이 근대적인 가정에서 주부의 역할부담이 낮아지며 가족간 갈등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 의사결정은 주부의 학력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족수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서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족수가 적을수록 영농 의사결정이 근대적인 유형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가족생활 의사결정은 주부의 연령과는 부적으로 경제수준과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서,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생활 영역에서 전통적 의사결정 유형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역할부담과 가족 갈등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서 주부의 역할부담이 클수록 가족갈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수가 많으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원간의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져 주부의 역할부담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가족간 갈등은 주부의 학력과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5. 분석에 포함된 변인간의 상관관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생활만족도	1.0000								
2. 영농의사결정	.0690*	1.0000							
3. 가족생활 의사결정	.1020**	.4776***	1.0000						
4. 가족갈등	-.1310***	-.0749*	-.1515***	1.0000					
5. 역할부담	-.1980***	-.1653***	-.1838***	.1281***	1.0000				
6. 주부의 연령	-.1270***	-.0522	-.0823**	-.0554	.0296	1.0000			
7. 주부의 학력	.2179***	.854*	.0613	.0689*	-.0629	-.5851***	1.0000		
8. 가족수	.0498	-.1200***	-.0491	-.0086	-.0645*	-.0812*	-.0357	1.0000	
9. 경제수준	.2838***	.0508	.1182**	-.0593	-.1082**	-.1154**	.2173***	.0313	1.0000
평균	3.174	2.349	3.028	2.048	2.382	46.673	1.911	4.911	2.183
표준편차	.665	1.282	.952	.678	1.272	10.816	1.589	1.382	.657

\* P<.05, \*\* P<.01, \*\*\* P<.001



농가주부의 의사결정 참여, 역할부담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위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한 이상의 변수들이 생활만족도에 갖는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회귀분석에서 나타난 표준화된 회귀계수중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영농 의사결정 변인과 가족수를 제외하고 (그림 1)에서 제시한 인과모형을 수정하여

경로분석을 하였다(표 6). 사회인구학적 변인 즉 주부의 연령, 학력, 경제적 수준을 외생변수로 하고 가족생활 의사결정 유형과 주부의 역할부담, 갈등 정도를 내생변수로 하여 농촌 주부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인과모형을 구성한 것이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표 6. 관련변수들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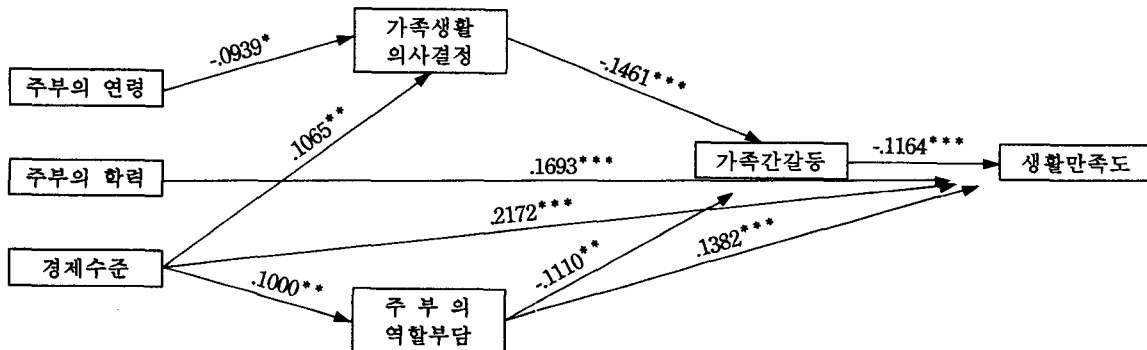
독립변수	가족생활 의사결정		주부의 역할부담		가족간 갈등정도		생활만족도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주부의 학력	-.0123	-.0208	-.0225	-.0282	-.0337	.0786	.0715	.1693***
주부의 연령	-.0083	-.0939*	.0017	.0142	-.0013	-.0213	-.0004	-.0066
경제수준	.1526	.1065**	-.1920	-.1000**	-.0480	-.0469	.2191	.2172***
가족생활 의사결정					-.1044	-.1461***	.0115	.0164
역할부담					.0593	.1110**	-.0727	-.1382***
갈등정도							-.1155	-.1164***
R <sup>2</sup>	.01984		.01305		.04825		.14349	

\* P < .05, \*\* P < .01, \*\*\* P < .001

표 7. 경로모델의 인과적분해

종속변수	독립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인과효과
역할부담	경제수준	-.1000**		-.1000
가족생활 의사결정	주부의 연령	-.0939*		-.0939
	경제수준	.1065**		.1065
가족간 갈등정도	주부의 연령		.0137	.0137
	경제수준		-.0326	-.0326
	가족생활 의사결정	-.1461***		-.1461
	주부의 역할부담	.1110**		.1110
생활만족도	주부의 교육수준	.1693***		.1693
	주부의 연령		-.0016	-.0016
	경제수준	.2172***		.2341
	가족생활 의사결정		.0170	.0170
	주부의 역할부담	-.1382***		-.1511
	가족간 갈등정도	-.1164***		-.1164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관련변수들의 경로모형

생활만족도에 대한 가족관계 변인의 인과적 효과를 (표 7)에서 살펴보면 가족관계 변인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주부의 역할부담(총효과:  $\beta=.1511$ )으로 직접적 효과( $\beta=-.1382$ ) 뿐만 아니라 가족간 갈등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효과( $\beta=-.0129$ )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간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역할이 주부에게 집중되어 역할부담이 커질수록 농가주부의 생활만족도는 낮아지며, 또한 가족간 갈등을 높이는 간접적 경로를 통하여 주부의 생활만족을 낮춘다고 볼 수 있다. 가족간 갈등정도와 생활만족도간에는 부적인 직접효과( $\beta=-.1164$ )가 존재하며, 가족생활 의사결정 유형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의사결정 유형은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않지만 가족간 갈등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 $\beta=.0170$ )을 미쳐, 가족생활 의사결정 유형이 근대적일수록 가족간 갈등은 감소하며, 이에 따라 주부의 생활만족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생활만족도에 대한 사회인구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경제수준(총효과:  $\beta=.2341$ )으로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beta=.2172$ ), 그리고 역할부담, 가족생활 의사결정 유형 및 가족갈등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 $\beta=.0169$ )를 통하여,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농촌주부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주부학력은 여타변인을 통한 매개적인 경로없이 직접적( $\beta=.1693$ )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어서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부의 연령은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가족생활 의사결정 유형과 가족간 갈등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 $\beta=-.0016$ )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농촌주부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본 경로모형의 총 설명력은 1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주부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과 그들의 인과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족간의 역할분담이 잘 되어 주부의 역할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의사결정유형이 근대적일수록 가족갈등 정도가 낮아지며 주부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본 연구의 기본 가정이 지지되는 방향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농가주부의 가족내 의사결정의 참여와 역할부담 및 가족갈등 정도를 파악하여 농촌주부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본 연구의 조사대상 농가의 의사결정 유형은 농사일에 관한 의사결정은 상대적으로 남편주도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전통적 성역할 분화 유형이 존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일치/자율형의 비율이 높아서 주부참여형의 근대적 패턴이 증가하고 있는 전반적인 추세를 나타낸다. 또한 가족일에 관한 의사결정에서도 일치/자율형의 비중이 남편주도/부인주도 유형보다 높아서 근대적 패턴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원간의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사대상 가족의 2/3이상이 주부에게 역할이 집중된 유형인 것으로 나타나 농가주부의 역할부담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2. 농가주부의 의사결정 참여, 역할부담 및 가족갈등과 농가주부의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주부의 역할부담이 낮은 경우 그리고 가족갈등이 적은 집단에서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의사결정 유형이 근대적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리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3. 농가주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주부의 연령, 학력 및 경제수준에 따라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적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한편 경제수준별 생활만족도는 경제수준이 제일 낮은 집단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다가 경제수준이 아주 높은 집단에서는 만족도가 오히려 약간 낮아지는 형태를 나타냈다. 가족수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농가주부의 의사결정 참여정도와 역할부담정도 그리고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간의 인과모형을 검증한 결과, 가족생활 의사결정은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가족갈등을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역할부담은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가족갈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갈등도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수준은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또한 가족생활 의사결정, 역할부담, 가족갈등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생활만족도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간접적인 영향없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연령은 가족생활 의사결정과 가족갈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글의 앞부분에서 지적한 대로 의사결정 유형 및 주부역할의 측면에서 현재 농촌가족은 전통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가 공존하는 과도기적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사결정 유형은 아직 전통적 역할의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특히 영농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주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고 남편주도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에서 잘 나타나 있다. 가족원간의 역할의 분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주부에게 역할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곧 여성의 역할 부담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역할부담 정도가 주부의 생활만족도에 직·간접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앞으로의 노력이 어느 방향으로 경주되어야 할 것인가를 시사한다고 하겠다.

농촌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원간의 갈등에 관하여 살펴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가족갈등이 주부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험적으로 보여준 본 연구결과는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특히 의사결정 유형과 주부의 역할부담이 모두 가족갈등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농촌가족관계의 바람직한 변화방향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농촌가족 내 역할관계나 의사결정 유형이 민주적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

에는 이건의 여지가 별로 없겠으나, 농촌사회의 급속한 변화속도와 맞추어 가족원의 지위와 역할을 민주적으로 정립하도록 농촌가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도사업이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성의 농업생산 활동과 가정내 역할과의 조화를 돕도록 하는, 그래서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도사업과 교육 프로그램은 남편을 포함하는 가족원 모두를 대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생산자'로서의 여성의 지위상승만 논할 것이 아니라, 가사일의 지역사회 단위의 사회화 방안 모색 등 정책적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농촌여성들의 '일상생활이 사람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모색이 건강한 농촌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생활만족도, 가족갈등 및 역할부담 등의 측정에 단일문항 척도를 사용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서 농가주부의 역할과 삶의 질과의 관련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분화된 척도를 이용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김주숙. 1984. "한국의 농촌여성 발전을 위한 논고". 여성연구 2권 3호
- 김홍주. 1992. "현단계 농업노동의 실태와 농민의 가족문제" 농촌사회 제2집 일신사
- 고황경의 3인. 1963. 한국농촌가족의 연구. 서울대출판부
- 김혜숙. 1982. "부부간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I) : 제주도 농·어촌을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제20권 3호
- 문숙재, 김재경. 1992.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형성기 가정과 확대가족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권 1호
- 박혜인. 1991. "한국 농촌가족의 부부관계에 대한 가족발달적 접근". 한국농촌생활과학지 제2권
- 오인숙. 1989. "한국 농촌의 부부간 권력 및 역할관계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
- 이기영. 1984.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 3호. "주부가

-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인간 생태학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권 2호
- 이길순. 1979. “농가 주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이한기. 1977. “농촌 가족내 부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박민선. 1984. “농가의 의사결정과 부녀자의 역할”. 농협조사월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이은죽. 1977. “한국 가족의 부부간의 권위관계에 대한 유형적 접근. 한국사회학 제11집.
- 조옥라. 1992. “우리 농촌과 여성”. 한국여성개발원.
- 조희금. 1986. “농촌 주부가 인지한 삶의 질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 지방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가정생활연구 1권.
- 최은숙, 김인숙. 1990. “농촌 가정생활의 질진단을 위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권 2호
- 최은숙, 한경혜, 박양자. 1992. “한국농촌의 생활의 질 지표개발 및 진단-지역개발 지표구성을 위한 종합적 접근”.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33
- 최재석. 1975. 한국농촌사회연구. 서울. 일지사.
- 한경혜. 1992. 한국 농촌가족 연구방향 : 생활과학 연구방향 설정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농촌진흥청 영양개선연수원.
- 한경혜, 최은숙. 1980 “농가의 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11권 12호.